

오순절 후 열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9월 5일 오전 10시

인도: 김재우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4 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 33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6 번 이사야(Isaiah) 40 장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야고보서 (James) 5:7-12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갈보리의 장미”	찬양대
설 교 Sermon	“신앙을 삶으로 (11) – 길이 참으라” (Living out Your Faith – Be Patien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83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 33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더 크다고 여기며,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믿음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4:1, 롬 14:2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한글개역 **약5:7**)

“Be patient, then, broth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and how patient he is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NIV **James 5: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5 (주일)	9/6 (월)	9/7 (화)	9/8 (수)	9/9 (목)	9/10 (금)	9/11 (토)
본문	삼상29,30 고전10 겔8 시46,47	삼상31 고전11 겔9 시48	삼하1 고전12 겔10 시49	삼하2 고전13 겔11 시50	삼하3 고전14 겔12 시51	삼하4,5 고전15 겔13 시52-54	삼하6 고전16 겔14 시5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9/8수 오후7:30)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12:1-10)
토요 새벽기도회(9/11토 오전6:30)	“주의 인자를 좇아 긍휼히 여기소서”(시51:1-15)

지난 주일(8/29) 말씀

신앙을 삶으로 (10) –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약 4:17-5:6)

(흔히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의 가장 좋은 주석(해설서)은 바로 야고보서”라는 말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며, 또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약1:22)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 그리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2:22)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서, (제대로) 쓰이지 않은 재물과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물질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재물(돈)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재물에 있어서) 우리는 검소해야 하지만, 인색해서는 안되고(약5:2-3), 2)둘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겉코) 불의해서는 안되며(약5:4-5), 3)셋째,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며, 기회가 있을 때, 나누어야 한다(약4:17)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